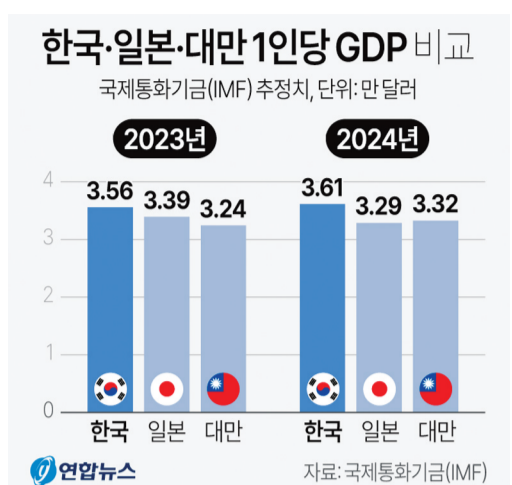


IMF “한국 1인당 소득, 올해도 일본보다 높아”

3만6132달러... 1.6% 증가 지난해보다 격차 더 늘어나 2027년 4만달러 돌파 전망

우리나라 1인당 국내총생산(GDP)이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일본과 대만에 여유 있게 앞설 것이라는 국제통화기금(IMF) 전망이 나왔다. 24일 한국은행 등에 따르면 IMF는 지난 22일 발표한 ‘세계경제전망’ (World Economic Outlook) 보고서에서 올해 한국의 1인당 GDP를 3만 6132달러로 추정했다. 이는 지난해(3만5563달러)보다 1.6% 증가할 수 있다. IMF 기준 한국의 1인당 GDP는 지난 2021년 3만 7518달러에서 2022년 3만 4822달러로 줄었다

가 지난해 다시 증가로 전환했다. 올해 일본의 1인당 GDP 추정치는 3만 2859달러로 지난해(3만 3899달러)보다 오히려 3.1% 감소했다. 그만큼 한국의 격차는 더 커진 셈이다. 대만의 1인당 GDP는 지난해 3만 2404달러에서 올해 3만 3234달러로 2.6% 늘어날 것으로 추정됐지만, 여전히 한국보다는 낮은 수준이다. 올해 대만이 일본을 역전한 점도 눈에 띈다. 내년의 경우 한국과 일본, 대만 사이 격차가 올해보다는 다소 줄어들 것으로 예상됐다. IMF는 내년 한국의 1인당 GDP를 3만 7675달러로 추정했다. 일본(3만 3234달러)보다 2064달러, 대만(3만 2859달러)보다 2751달러 각각 높은 수준이다. IMF는 한국이 오는 2027년 처음으로 1인당 GDP 4만달러를 돌파할 것으로 예상했다.



한은 관계자는 IMF 추정치에 대해 “엔화 약세 영향으로 일본의 달러 기준 1인당 GDP가 상대적으로 낮게 나왔을 것”이라며 “일본의 저성장 흐름도 고려됐을 것”이라고 말했다. IMF는 한국의 경제성장률을 올해 2.5%, 내년 2.2%로 전망한 바 있다. 일본은 0.3%와 1.1%, 대만은 3.7%와 2.7%로 각각 예상했다.

다른 관계자는 “올해 상반기 우리나라 명목 GDP 성장률이 상당히 높게 유지됐다”며 “그런 점에서 지난해보다 일본, 대만과의 격차가 더 커지는 것으로 분석할 수 있다”고 했다. 다만, 올해 구매력 평가(PPP) 기준 1인당 GDP는 대만(7만 9031달러)이 한국(6만 2960달러)을 큰 폭으로 따돌렸다. 일본(5만 3059달러)은 3개국 가운데 가장 낮았다. 이 같은 수치는 각국의 서로 다른 물가 수준 등을 감안해 조정된 환율을 적용한 결과라고 한은 관계자는 설명했다.

1~3분기 누적 48조원 석유제품 수출 역대 최대 반도체·자동차 이어 3위

국내 정유업계의 3분기 누적 석유제품 수출량이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대한석유협회에 올해 1~3분기 SK에너지, GS칼텍스, 에스오일(S-OIL), HD현대오일뱅크 등 국내 정유사의 석유제품 수출량이 3억 7349만 배럴로 집계됐다고 24일 밝혔다. 이는 전년 동기 대비 9.5% 증가한 수치로, 2018년 동기(3억 6600만 배럴) 이후 6년 만에 최대치다. 올해 3분기 석유제품 수출량은 전년 동기 대비 13.8% 증가했다. 1~3분기 석유제품 수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 4.4% 증가한 351억 5000만 달러(약 48조원)를 기록, 국가 주요 수출 품목 중 반도체, 자동차에 이어 3위를 차지했다. 수출 품목별로 보면 경유(41.1%)가 가장 많았으며, 이어 휘발유(22.6%), 항공유(18.3%), 나프타(8.4%) 순이었다. 글로벌 경기 침체로 인한 석유 수요 둔화 속에서도 수출량이 역대 최대치를 기록한 것은 호주, 일본 등 수요 증가 요인이 있는 국가에 대해 수출이 확대된 영향으로 분석된다. 최근 3년간 최대 수출 상대국인 호주는 에너지 안보 향상을 위해 2021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7억 8천만 배럴 규모의 경유 저장 시설을 확충했으며, 경유 의무 비축 일수를 20일에서 28일로 늘렸다. 이에 따라 올해 국내 정유사가 호주에 수출한 경우는 10% 이상 증가했으며, 호주 수출량 중 경유 비중은 67%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수출 상대국 3위인 일본의 경우 올해 휘발유 수출량이 45% 증가했다. 일본은 내연기관차 생산 감소, 하이브리드차 선호에 따른 휘발유 수요 하락으로 휘발유 생산이 감소하는 분위기인데다 올해부터 정제설비 정기 보수 등으로 가동률이 낮았다. 여기에 엔저 현상으로 관공객이 몰리면서 부족해진 휘발유를 수입산으로 대체해 일본 휘발유 수입 시장에서 한국산 점유율이 81%에 달했다. 다만 경영 여건은 악화했다. 1~3분기 수출 채산성은 글로벌 경제침체로 인해 9.3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35%가량 감소했다. 특히 3분기에는 72%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롯데백화점 광주점 27일까지 ‘하반기 와인 & 리큐어 박람회’



롯데백화점 광주점 직원들이 다양한 와인들을 선보이고 있다. 광주점은 오는 27일까지 와인 본매장에서 ‘2024년 하반기 와인 & 리큐어 박람회’ 행사를 진행한다. 이번 행사에서는 현대 미술의 가장 김환기 작가의 작품과 콜라보한 ‘김환기 X 돈멜초 아트 스페셜 에디션’과 도도새 작가로 유명한 김선우 작가와 함께한 ‘김선우 X 리카솔리 아트 스페셜 에디션’ 등 상품들을 만나볼 수 있다. 행사 기간 중 초특가 와인부터 프리미엄 와인까지 다양한 와인 제품을 최대 70% 할인기에 판매한다. 구매 금액대별로 5% 상당의 롯데상품권을 증정하는 사은 행사도 함께 진행된다.

전남정보문화진흥원, ‘JCEP 엑셀러레이팅 투자 네트워킹 데이’ 성료

5개 콘텐츠 기업·투자사들 참여

(재)전남정보문화산업진흥원(이하 ‘진흥원’)이 지난 23일 전남도내 5개 기업과 투자전문가들이 참석한 가운데 ‘JCEP 엑셀러레이팅 투자 네트워킹 데이’를 개최했다. ‘JCEP 엑셀러레이팅 프로그램’ 중 하나인 이번 행사는 지역 콘텐츠 기업과 투자사 간의 소통과 협력을 촉진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투자 전문가들은 이날 투자 유치 생태계의 이해 및 실전을 주제로 강연하고, 선정 기업들이 투자 유치를 위한 구체적인 전략을 모색했다. 또 선정 기업 및 투자사 간 네트워킹 세션을 통해 참가자들이 자유롭게 의견을 나누고, 협업 가능성을 탐색하는 시간을 갖기도 했다. 이인용 원장은 “우리는 지역 스타트업이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있다”며 “특히 이번 네트워킹 데이가 기업들에게 유익한 경험이 되었기를 바라며, 앞으로도 더 많은 기회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광주국세청 조직성과 평가 2년 연속 최하위

박홍근 의원 국감서 지적

광주지방국세청이 전국 7개 지방국세청 중 국세청이 주관하는 조직성과평가에서 2년 연속 최하위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홍근(서울 중랑) 의원은 정부광주지방합동청사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광주지방국세청이 국세청 조직성과평가에서 2년 연속 가장 낮은 순위를 기록했다”고 지적했다. 국세청은 매년 7개 지방국세청에 대해 ▲납세서비스 ▲징세 ▲법무심사 ▲세원관리 ▲조사 ▲재산제세 ▲감사 ▲기타 등 8개 분야의 조직성과평가를 실시하고 있다.

박 의원은 “최근 광주지방국세청이 조직성과평가에서 저조한 성적을 기록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실제 지난 5년간 지방국세청 조직성과평가 결과를 보면 광주지방국세청은 2019년 5위→2020년 7위→2021년 3위→2022년 7위→2023년 7위를 기록했다. 또 올해 상반기에도 징세분야와 조사분야, 연차 활용 등 인사관리 등을 평가하는 기타 분야에서 모두 7위를 기록했다. 박홍근 의원은 “광주지방국세청이 지난 2006~2009년 당시에는 조직성과평가에서 상위권을 기록한 적도 있었다”며 “과거와 달라진 점을 파악하고, 재점검해서 개선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10월 광주·전남 소비 심리 기준치 밀돌아

전국 최하위 수준...비관 전망

고물가에 따른 경기침체 양상이 회복세를 보이면서, 전국 소비 심리가 상승세를 보이고 있지만 광주·전남 지역민들은 여전히 지역 경제상황을 비관적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한국은행 광주전남본부가 발표한 “2024년 10월 광주·전남 소비자동향조사 결과”에 따르면 광주·전남 10월 중 소비자심리지수(CCSI)는 94.9로 전월(93.0) 대비 1.9포인트(p) 상승했다. 전국CCSI가 100.0에서 101.7로 1.7p 오른 것보다 상승폭이 컸지만, 여전히 전국 최하위 수준의 CCSI를 기록하고 있다. CCSI는 현재 경제상황에 대한 소비자들의 인식

및 향후 소비지출전망 등을 보여주는 종합 지표로, 이번 조사 결과는 한국은행 광주전남본부가 지난 10일부터 17일까지 광주·전남지역 534가구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다. CCSI는 지난 20년간의 장기평균치 기준값으로, 100보다 크면 경제상황이 낙관적, 낮으면 비관적임을 뜻한다. 광주·전남지역 CCSI는 지난 2022년 5월(102.3) 이후 29개월째 100보다 낮은 상황이다. 구성지수별로 보면 소비지출전망은 0.4p 감소했지만, 현재생활형편(0.8p), 생활형편전망(0.5p), 현재경기판단(0.4p), 향후경기전망(0.5p) 등은 상승했다.

중소기업융합대전 개막 교육실습기자재 제조 지역기업 상호시스템 눈길

중소벤처기업부와 광주시가 공동주최하고, 중소기업융합중앙회와 중소기업융합 광주전남연합회가 주관하는 ‘2024 중소기업융합대전’ 24일 개막한 가운데 교육실습기자재 및 전기기자·수소전기차 시뮬레이터, 전기전자·전장회로 실습패널 및 기술구조 전시장비를 설계, 제조하는 전문기업이다. 또 미래기차 창조에 중점을 두고 경영하는 교육실습기자재 전문기업으로, 다양한 기술 개발을 통해 발전하고 있는 기업으로 평가받고 있다. 이명준(주)상호시스템 대표이사는 “산업현장의 최신 트렌드와 전문가의 생생한 노하우 전수를 위하여 지역의 산업체와 교류를 지속, 발전시켜 건설한 기능인을 양성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며 “앞으로도 학생들과 함께하는 학교운영위원회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전·기아, PBV 활용 전력 생태계 구축 업무협약

한국전력은 지난 23일 서울 ‘Kia 360’에서 기아와 ‘목적기반모빌리티(PBV)’를 활용한 미래 전동화 및 전력 생태계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PBV는 전용 플랫폼을 바탕으로 사용자의 목적에 맞춰 다양한 형태로 제작이 가능한 차세대 전기차다. 이번 협약을 통해 기아는 한전의 직무 특성에 맞춘 PBV 모델을 개발한다. 아울러 양사는 전력 생태계 변화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PBV를 활용한 양방향 충전(V2G), 전기차 자동 결제 충전(PnC) 등 미래 신기술 개발에도 협력하기로 했다. 업무용 PBV를 활용한 양방향 충전 기술이 마련되면 지역 내 전력 수요가 높을 때 충전기에 연결된 전기차의 배터리를 전력망에 전기를 공급하는 에너지저장장치(ESS)처럼 활용될 수 있다. 자동차 한 대의 배터리 용량은 제한적이지만 이 같은 방식으로 연결된 차량이 많아지면 이론적으로 지역 전력망 안정에 상당한 기여를 할 수 있다.

경영권 분쟁 지분경쟁 격화 고려아연 주가 100만원 돌파

고려아연의 경영권 분쟁이 공개매수 종료 후에도 치열하게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에 24일 고려아연 주가가 가격제한폭까지 치솟으며 100만원을 훌쩍 넘어섰다. 고려아연 지분을 보유한 영풍정밀도 덩달아 상당가로 장을 마쳤다. 이날 고려아연은 전 거래일 대비 29.91% 오른 113만 8000원에 마감했다. 고려아연은 자기주식 공개매수가 종료된 전날은 공개매수가인 89만원보다 낮은 87만 6000원에 거래를 마쳤으나, 이날은 개장 직후부터 급등해 역대 최고가를 기록했다. 이로써 고려아연은 유가증권시장에서 삼성바이오로직스와 함께 2개뿐인 주가 100만원 이상 황제주에 등극했다. 경영권 분쟁 발생 전 유가증권시장에서 40위권을 유지하던 고려아연의 시가총액 순위는 이날 13위까지 높아졌다. 고려아연 지분 1.85%를 보유해 경영권 분쟁의 키를 쥐고 있다는 평가를 받는 영풍정밀도 이날 30% 오른 2만 6000원을 기록, 상한가로 거래를 마쳤다. 영풍·MBK파트너스 연합과 경영권 분쟁 중인 고려아연은 전날 끝난 자사주 공개매수 결과를 금명간 공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 한 눈에 보는 경제지표 | |
|--------------|------------------|
| ↓ 코스피 | 2581.03 (-18.59) |
| ↓ 코스닥 | 734.59 (-10.60) |
| ↓ 금리(국고채 3년) | 2.891 (-0.045) |
| ↓ 환율(USD) | 1377.95 (-4.55) |